

‘양궁 메카’ 광주에서 쏘아올린 꿈…미래로, 세계로



2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개회식에서 내빈들과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제43회 대통령기 전국남·여 양궁대회 열전 돌입

한국 양궁 ‘현재와 미래’ 600여명 참가…29일까지 명승부 예고 광주국제양궁장서 예선, 5·18민주광장특설무대에서 결승전 열려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프레 대회로 열리는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가 ‘양궁 메카’ 광주에서 본격 열전에 돌입했다.

24일 오후 3시30분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고광원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김병내 남구청장, 이연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

회 사무처장,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박명국 전남양궁협회장,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등 내빈들과 선수, 지도자, 심판진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를 다짐했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 주역들이 출전하는 전통 있는 대회로, 전국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

는 대통령기 양궁대회는 2017년부터 광주에서 7년 연속 열리다 지난해 광주국제양궁장 확장 공사로 잠시 멈췄다 올해 다시 광주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 600여명이 참가해 1천440 라운드 및 올림피아운드 방식으로 오는 28일까지 시·도 대항, 개인전, 단체전, 거리별 승자를 가린다.

국제 규모의 경기시설, 숙박, 교통, 음식 등에서 ‘최고’라는 참가선수들의 호평 속에 해마다 역대 최고의 성공대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도 다양한 기록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에 광주에서는 남구청(남자일반부), 광주시청·광주은행 텐텐양궁단(여자일반

부), 조선대(남자대학부), 광주여대(여자대학부), 광주제고(남·녀 고등부)가 출전해 ‘금빛과 녀’를 정조준한다.

예선전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29일 전 종별 결승전은 5·18 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결승전은 생중계 방송으로도 일부 진행되며, 다음날인 30일에는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번 대회 일반부 우승팀 간의 특별 이벤트 경기도 치러져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붐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은 “대한민국 양궁은 세계 무대에서 위상을 떨치며 국민들에게 자

긍심을 안겨준 자랑스런 스포츠 종목이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는 매년 치러지는 대통령기 양궁대회와 같은 권위 있는 대회에서 탄생한 스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회를 위해 광주를 찾아온 선수 여러분 모두의 땀과 열정은 반드시 내일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다. 승패를 떠나 스포츠 정신과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는 9월 광주에서 세계 양궁인들의 축제인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린다. 빛고을에서 쏘아올린 ‘평화의 올림’이 한국 양궁의 위상을 드높이는 역대 최고의 성공대회 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뜨거웠던 6월’…KIA 팀 평균자책점·WHIP, 피안타율, 피OPS ‘리그 1위’

수직 상승 원동력은 ‘확 달라진 마운드’



네일

올러

김도현

전상현

〈KIA 타이거즈 제공〉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가 6월 들어 확실히 달라졌다. 선발과 불펜이 조화를 이루며, 투수진 전체가 균형감을 갖추고 있다.

KIA는 이달 18경기에서 12승 5패 1무, 승률 0.706으로 리그 최고 성적을 거뒀다. 순위도 지난주 7위에서 단숨에 4위로 뛰어올랐다. 그 중심에는 마운드가 있었다.

23일 기준, KIA의 6월 팀 평균자책점(ERA)은 3.19. 10개 구단 중 1위다. 리그 평균(4.27)보다 1점 이상 낮은 수치다.

질적 지표도 압도적이다. WHIP(1.19), 피안타율(0.237), 피OPS(0.637) 모두 리그 1위. 9이닝당 볼넷도 5월까지 4.01에서 6월엔 2.70으로 줄었다. 제구 안정과 피칭 효율 모두 확실히 좋아졌다.

이달 들어 가장 견고한 마운드를 운영 중인 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선발진의 반등이 두드러진다.

5월까지 선발 ERA는 3.77(5위)이었지만, 6월엔 3.20으로 리그 1위에 올라섰다.

외국인 원투펀치 네일과 올러는 이달 나란히 2승씩을 거두며 선발진을 이끌었다.

네일은 평균자책점 2.96, WHIP 0.86으로 흔들림 없이 버텼고, 올러는 무피홈런과 팀 내 최다 탈삼진(30개)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내 선발 김도현은 시즌 평균자책점 3.02, 6월엔 1.93으로 더 낮췄고, 윤영철은 시즌 초 15.88이었던 ERA를 5.18까지 끌어내렸다. ‘대투수’ 양현종도 4경기 중 3경기에서 5이닝 이상 소화하며 선발진의 한 축을 지켰다.

불펜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5월까지 불펜 ERA는 5.59로 리그 9위였지만, 6월엔 3.18로 대폭 낮아지며 2위에 올라섰다. WHIP(1.25·리그 2위), 9이닝당 볼넷(3.32·3위) 등 투구 질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이는 곧 운용 안정

성과 실점 억제력이 살아났다는 방증이며, 경기 후반 불안감도 줄었다.

조상우, 전상현, 이준영 등 필승조가 제 제도에 올랐고, 성영탁과 이호민 등 신예들도 가세해 마운드 전체에 힘을 불어넣었다.

단, 마무리 정해영은 6월 들어 기록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불펜 전체가 안정되면서 리스크는 최소화되고 있다.

KIA의 6월 마운드 반등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김도영 등 핵심 전력에 대거 빠진 가운데, 흔들림 없이 경기를 지행한 마운드가 반등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됐다.

선발은 안정적으로 이닝을 끌어주며 흐름을 잡았고, 불펜은 점전 상황마다 흔들림 없이 버텨내며, 마운드 전체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이 변화는 투수들만의 힘으로 완성된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외야 수비가 마운드를 단단히 받쳤다. KIA는 올 시즌 외야 보살이 17개로 리그 1위다. 외야진의 강한 어깨와 정확한 송구는 주자의 진루를 막아내며 투수들의 실점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마운드 안정화 기여에 공격도 빼놓을 수 없다. 6월 팀 타율은 0.266(리그 8위)으로 낮지만, 장타율(0.412) 2위, 득점 88점(공동 3위)으로 효율적인 득점력을 보였다. 찬스에서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마운드 운영에도 여유가 생겼다.

실제로 리그 1위 팀인 한화조자 6월 팀 ERA는 3.68(3위), 선발 ERA 3.52(3위), 불펜 ERA 3.90(5위)로 KIA에 미치지 못했다.

순위는 뒤쳐져있지만, 마운드의 완성도만큼은 KIA가 더 앞서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조만간 차세대 ‘좌완 에이스’ 이의리까지 복귀할 예정이다. 좌우 균형과 마운드 운용의 폭이 더해진다면, KIA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다시 중심에 선 마운드, 호랑이 군단의 상승세를 끝까지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홍철 기자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자원봉사 협약 체결



2025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가 오는 9월 열리는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조직위와 광주시·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3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운영 기반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이연 조직위원회 사무처장과 류미수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해 동구

(김순권), 서구(임영희), 남구(김정희), 북구(홍점순), 광산구(강은숙) 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7월 초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8월에는 발대식과 소양교육을 실시한 뒤, 9월에는 현장 직무교육을 거쳐 자원봉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조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QR코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희중 기자

전국육상선수권대회 200m 20초73 우승…한국新 ‘다음 기회에’

광주시청 고승환, 세계선수권 청신호

광주시청 고승환(사진)이 24일 강원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9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200m에서 20초73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목표표 했던 한국신기록(20초40)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우승으로 도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랭킹포인트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대회 남자 200m는 고승환의 한국신기록 수립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전날 자신의 개인최고기록(20초49)을 0.04초 앞당겼던 고승환도 기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기에 우승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남자 200m 한국신기록은 박대건이 2018년 6월에 세운 20초40이다.

고승환은 이날 한국기록에는 실패했지만 세계랭킹 포인트를 쌓아 도쿄행 티켓 획득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오는 9월 일본에서 열리는 2025도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을 바라보고 있는 고승환은 트랙에서는 유일하게 출전 초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육상선수권을 위한 현재 고승환의 세계



랭킹은 41위이며 매주 수요일(현지시간) 업데이트되기에 이번 대회 우승 포인트가 가산되면 랭킹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행을 위한 랭킹 순위는 48위까지. 랭킹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주어지는 대회 출전과 한국신기록이 필요하다. 고승환은 세계육상선수권 출전 확정을 위해 랭킹포인트를 더 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2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출전, 다시 한번 한국신기록에 도전한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어제 개인 최고기록을 세우면서 한국기록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기록 경신이 쉽지 않다. 선수 본인도 아쉬워하고 있다”면서 “도쿄에 갈 수 있는 트랙 선수는 사실상 고승환이 유일하다. 안정적인 랭킹포인트를 위해 남은 기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